제10장 좋은 정치의 효과

도 입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 풍요만 누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율곡선생은 유학의 전통에 따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린 다음에는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교육 또는 교화가 잘 이루어졌다면 어떤 효과가 더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인(仁)이라는 가치가 천하를 덮게 되고, 군주의 덕이 천심(天心)에 부합되고, 그 은택이 후세에까지 흘러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3부의 마지막 장이다.

본 문

[예기]

대도(大道)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가 공평해져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발하여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화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늙은이는 생을 잘 마감할 곳이 있고 젊은이는 쓰일 곳이 있으며, 어린이는 자랄 곳이 있으며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 불구자도 모두 부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모략이 막혀서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 일어나지 않아 사립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으니, 이것을 대동(大同)이라고 한다.

〈주석〉 진씨(陳氏)가 말하였다. "대동(大同)이란 공평한 도로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이다."

[중용]

그러므로 명성이 중국(中國)에 넘치고 오랑캐 지역에까지 뻗쳐 가 배나 수레가 이르는 곳이나 인력이 통하는 곳, 하늘 아래 땅 위, 해와 달이 비치고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모든 곳의 혈기(血氣)를 지닌 자가

높이고 친애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러므로 하늘을 짝한다고 일컫는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하늘을 짝한다는 것은 덕이 하늘처럼 넓고 크게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시경]

아름다운 군자여,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고 드러나네. 백성과 벼슬아치를 합당하게 대하여 하늘의 녹[天祿]을 받았네. 보호하여 돕고 명을 내리는 일을 하늘이 거듭하시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임금의 덕이 백성과 벼슬아치를 합당하게 대하여 하늘에서 복록을 받게 되었는데, 하늘이 임금을 반복해서 돌보아 주면서 싫증을 내지 않고, 거듭 보우(保佑)하고 명령하기를 또 계속한 것을 말한다."

[대학]

군자는 그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고, 그 어버이를 친애(親愛)하였으며, 소인은 그 즐거움을 즐거이 여기고, 그 이로움을 이롭게 여겼다. 이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주석〉 주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후세의 현자(賢者)와 왕자(王者)를 말하는 것이요, 소인은 후세의 서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전의 왕들이 백성을 새롭게 하여, 지극한 선(善)에 머물러서 천하 후세로 하여금 한 사물이라도 그 처소를 얻지 못한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에, 전왕이 세상을 떠났어도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오래도록 잊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다."

[율곡의 풀이]

나라를 다스리는 보람은 인(仁)으로 천하를 덮어 주고 은택이 후세에까지 흐르게 하는 것으로, 성인이 할 수 있는 일로 이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으니, 참으로 고원(高遠)하여 거의 미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데 근본을 두고 순서에 따라 점진해 나간다면, 마치 길 가는 사람이 뒤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집에 이르고, 밥 먹는 사람이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배불러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다만 임금이 참으로 이것을 고원하다고만 여겨 실행하지 않으실까 근심할 뿐이다.

성왕의 정치는 책에 잘 진술되어 있다. 이는 규구(規矩)가 손에 있어서 모난 물건과 둥근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처음에는 비록 어긋나는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는 점차 익숙해질 것이니, 어찌 왕정(王政 : 왕다운 왕이 베푸는 어진 정치)을 시행할 수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대개 임금으로서의 병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욕심에 끌려 왕정을 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세속의 흐름에 빠져 왕정을 행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많은 욕심에 끌리는 사람은 시비(是非)의 공정한 것이 항상

사사로운 이익에 가리어지고, 유속(流俗)에 빠진 사람은 성현의 말보다 항상 비루한 말에 굴하게 된다. 후세에 다스려지는 날이 항상 적은 것은 오직 이 때문이다.

대개 인의(仁義)를 몸소 실천한다는 것은 천덕(天德)이요, 생민을 교화하고 양육한다는 것은 왕도(王道)이다. 후세의 임금들은 항상 말하였다. "나 같은 소자가 어찌 감히 옛 도를 바라겠는가?" 한다. 천덕과 왕도에 대한 말은 옛 성현의 일이요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여, 신하가 이에 대해 진언(進言)하면 바로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이상만 높고 실상이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의 정대무사(正大無私)한 것이 바로 천덕이고, 합당하게 일에 처하여 인심에 따르는 것이 왕도인 줄을 너무도 모른다. 때에는 고금이 없고 도는 고원한 것이 아니며,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니, 다만 이것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근심할 뿐이다. 욕심이 많은 임금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즐기고 있으니, 이것은 본래 말할 것이 못 되거니와 때로는 선을 하는 임금도 흔히 유속(流俗)에 빠지는 것을 면치 못하니, 더욱 애석한 일이다.

지금 기강을 떨치고 있는지 무너뜨리고 있는지, 선비들의 습속이 정당한지 구차한지, 재상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일없이 녹만 먹는지, 백관들이 자기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게을리 하고 있는지, 백성들이 잘 휴양하고 있는지 지쳐 있는지를 어찌 깊이 생각지 않는가? 만일 기강이 떨치고 있어서, 선비들의 습속이 정당하고, 재상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며, 백관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잘 휴양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의 왕도 정치에 가깝다. 일변(一變)하면 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니, 어째서 옛 도를 회복할 수 없겠는가? 만일 기강이 무너져 선비들의 버릇이 구차하고, 재상이 일없이 녹만 먹고, 백관이 사무에 게으르고, 백성들이 지쳐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망할 증상이다. 마땅히 급급히 서둘러서 개혁해야 할 것인데, 우선 당장 탈이 없다고 안심하고 도리어 무언가 해보려는 것을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이것은 아마 지혜가 천박하고 모자라서 앞으로의 큰 근심을 염려하지 못하고 다만 눈앞의 무사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로부터 무도(無道)한 나라에서는 선인(善人)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하로서 선(善)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임금이 도를 행하다가 화를 입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대개 임금이 명령을 세워서 난(亂)을 치(治)로 돌리는 것은 다만 마음 하나에 있을 뿐이니, 마음 하나가 도를 향하여 쉬지 않고 힘써 나가면, 곧 정치에 베풀어져서 세도(世道)가 일변(一變)할 것이다. 그러면 어찌 기강을 세워 선비의 나쁜 습속을 교정(矯正)하고, 재상에게 정사를 맡기며 백공(百工)에게 일을 빛나게 하고, 서민들을 안락하게 하여, 선왕의 도를 따르다가 도리어 화를 입고 실패할 일이 있겠는가? 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해설

앞의 율곡선생의 풀이는 매우 긴 문장이다. 필자가 요점만 간추려 수록하였다. 좋은 정치의 효과를 말하는 장이지만, 그 내용은 앞에서 간략히 제시하고 대부분의 내용은 선조임금에게 바른 정치를 위해 개혁을 촉구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우선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는 임금에게 두 가지 병통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자기 욕심에 끌려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현의 말을 버리고 세속의 흐름에 따라 정치를 펼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이 자포자기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임금이 스스로 성현이 말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 마땅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기강이 무너져 선비들의 버릇이 구차하고, 재상이 일없이 녹만 먹고, 백관이 사무에 게으르고, 백성들이 지쳐 있으면 이것은 앞으로 망할 증상이다."라고 임금에게 극언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선생의 사후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보면, 선생의 이 같은 나라 걱정은 탁월한 예견이라 하겠다.

생각해 볼 문제

1. 누구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이나 교화를 받지 않았는데에도,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저절로 감화되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또 나의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이 남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2. 지성감천(至誠感天)이라는 말이 있다.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 한다'라는 뜻으로, 무엇이든 정성껏 하면 하늘을 움직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성감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3. 율곡선생은 좋은 정치는 오로지 군주 한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는 군주제 통치체제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선생 또는 당시 선비들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 대안으로 왕권을 제한해서라도 다른 권력기구나 기관을 만들 생각을 못했거나 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의논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양식 의회제도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대 도 지 행 야 천 하 위 공 선 현 여 능 강 신 수 목
大道之行也에 天下爲公하여 選賢與能하고 講信修睦하니
고 인 불 독 친 기 친 불 독 자 기 자
故로 人이 不獨親其親하고 不獨子其子하니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大 : 크다/道 : 도리/之 : 어조사/行 : 행하다/也 : 어조사/爲 : 되다/公 : 공변되다/選 : 가리다/賢 : 어질다/與 : ~와, ~과/能 : 능하다/講 : 익히다/信 : 믿다/修 : 닦다/睦 : 화목하다/故 : 그러므로/獨 : 홀로/親 : 어버이, 친애하다/子 : 아들, 자식/其 : 그

*賢은 어진 사람, 能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였다.

*不獨 : ~만 ~하지 않았다

*親과 子는 각각 동사와 명사(목적어)의 두 가지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대도(大道) : 큰 길.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큰 도리

해석

대도(大道)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가 공평해져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발하여 신의(信義)를 강구하고 화목을 닦으니,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시 고 모 폐 불 흥 도 적 부 작 외 호 불 폐
是故로 謀閉가 不興하고 盜賊이 不作하여 外戶를 不閉하니
시 위 대 동
是謂大同이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是 : 이/故 : 연고, 까닭/謨 : 모의, 꾀/閉 : 닫다, 닫히다/不 : 아니하다/興 : 일다/盜 : 훔치다/賊 : 도둑, 해치다/作 : 일어나다/外 : 바깥/戶 : 외짝 문, 출입구/謂 : 일컫다/大 : 크다/同 : 같다

*是謂 : 이것을 일컬어 ~라고 한다.

*謨閉 : 간사한 꾀가 막히는 것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대동(大同) : 비슷비슷함. 온 세상이 번영하여 잘 살게 됨. 원뜻은 공평한 도로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을 일컫는 말.

해석

그러므로 모략이 막혀서 일어나지 않고, 도둑이 일어나지 않아 사립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으니, 이것을 대동(大同)이라고 한다.